

## ■ 特別企劃=座談會 ■

主  
題6·25戰亂 중의  
國會活動을 되새기며

本誌는 6·25 34주년을 맞이하여 그當時의 國會議員님을 모시고  
 戰亂 중의 國會와 國會議員의 活動狀況을 回顧하면서 國難克服의 歷  
 史的 教訓을 되새겨 보기 위해 特別企劃으로 座談會를 開催했다.



## ■ 參席者 ■

尹吉重(國會議長)

李載燦(國會議員)

洪滄燮(前國會議員)

黃聖秀(前國會議員)

司會 南載熙(國會議員)

(가나다順)

► 日 時: 1984年 4月 20日 14:00

► 場 所: 國會貴賓室



李載灝 議員

○司會：오늘 우리 國會의 大先輩님들께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國會報例에서 2代國會議員으로 계셨던 배분先生님을 모시고, 當時가 특히 6·25가 있었던 國會였던 만큼 그 문제와 關聯해서 여러가지 教訓的인 얘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座談會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制憲國會도 그렇습니다 마는 2代國會까지만 해도 國會에 우리가 「스테이스 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資質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고요. 지금 11代國會와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政治的인 風土랄까 人物이 말지가 대단히 많이 變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2代 때에는 獨立運動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여러가지 個性이 強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霽耕先生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序頭를 꺼내주셨으면 싶은데요.

○李載灝：制憲國會에는 南北協商 등을 시도 했던 중요한 분들이 選舉에는 많이 不參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2代國會에는 選舉에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 南議員이 말씀하시는 그 백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臨政에 관여했던 분들, 海外에서 獨立運動을 하신 분들 중에當選되었던 尹琦燮씨 또 趙素昂씨, 元世勳씨도當選되었지요. 그런데 池青天씨라든지, 延秉昊씨라든지, 李博士를 비롯해서 申翼熙先生 등은 制憲때에 하셨고 거기에 李甲成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選舉에 참여하셨고요, 新進도 물론 많이...,



尹吉重 議員

制憲때에는 民族陣營에서도 單獨反對가 있고 또 資備不足 合意未達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2代때에는 그것을 다 整理해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나이가 젊었던 우리가 본 적에는 아주 尊敬하는 大先輩로 모셔야 할 많은 분들이 參加하시고 또當選이 되어서 院內에 進出을 했읍니다.

○司會：그런데 나중에 評價를 해 보면 霽耕先生 말씀하신대로 制憲國會는 소위 말하는 單政反對勢力이 加擔을 안 했는데 2代國會는 單政反對勢力까지도 參與해서 가령 白凡系統이라든지 尤史系統이라든지 또 素昂系統이 全部 들어와서 歷代 國會중에서 共產黨을 除外한 政治勢力이 가장 多樣하게 모두가 參與해서 活動했던 時代가 唯一하게 2代 國會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尹吉重：그것은 나도 記憶을 합니다마는 制憲 때에는 이제 말한 것 같이 民族陣營이 블로 잘라져서 金九先生은 南北協商을 試圖하 보자는 立場이었고, 또 金奎植博士도 民族自主聯盟勢力인데 어쨌던 그 形勢上 꼭 單政을 反對한다는 그런 뜻 보다도 形勢上 制憲國會에 參與를 못하게 되었어요. 政治라는 것은 現實인데 그런 名分論만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代 때는 모두 參與가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地域에, 그때 세칭 中間派라고도 불리워지고 協商派라고도 했던 분들이 대거當選되었어요. 그리고 趙素昂, 張連松, 尹琦燮, 元世勳, 吳夏英, 張建相씨 등이 다當選이 되셨어요.



黃聖秀 前議員

2代에서 金奎植博士 势力이 많이 參與가 되었거든요. 民主聯盟 势力은 李承晚博士를 獨促關係로 해서 경제를 하면서…… 그立法議員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2代 때當選이 되었습니다.

○司會：요새 저도 젊은議員입니다마는 옛날先輩님들이 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國家에 대한 대단한 경륜이 있어가지고 政治나 國會에 進出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國會議員을 하기 위해서 國會議員으로 나간다는지… 무슨 특별한 경륜도 두렵하지 없이 政治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후회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大先輩님들께서 요새 新進政治하는議員들을 위해서 당시에 政界에 參與한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海陽先生님…

○洪滄燮：저는 制憲國會 때에는 春川市長을 하고 있었어요. 三陟郡守, 原州郡守를 거쳐 가지고 春川, 우리 尹副議長區域에서 郡守를 했습니다.

制憲國會 때에는 春川市長을 하다가 2代 國會 때에 無所屬으로 出馬를 해서 그때 제가當選이 되었는데 나와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당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制憲國會 때는 獨立運動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무條件 썩었어요. 그래서 무슨 選舉運動이고 뭐고 별로 어려움 없이 獨立運動했다고 하면 그분 이번에 해 드려야 된다고 해서 大部分이 그런 분들이 되었다고 보고, 2代 國會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공로 있는



洪滄燮 前議員

분은 한번 機會를 드렸으니 이제는 人物本位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政治에 경험 있는 분, 學界에서 명성 있는 사람이라든지 地方에서 무슨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人物이 2代 國會에…아까도 南議員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한 巨物級이當選된 것이 2代 國會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듣건대는 2代 國會가 제일 人物도 낫고 또 不正選舉라는 것도 변로 없고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當選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본다면 우리나라의 巨物이라고 하는 분은 거의가 다當選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같은 사람이야 뭐 시골에서 1個 市長을 하던 사람이니까 큰 포부도 없었으니다마는 그래도 地方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認定을 받아서 無所屬으로當選이 됐었습니다.

○司會：黃博士님 政界에投身하게 된 過程 좀 설명해 주세요. 교훈으로서…

○黃聖秀：6·25와도 다소 關聯이 있읍니다마는 6·25와 현재와의 비교, 反省,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世間에서는 6·25가 물연히 일어난 事變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6·25事變 前에 外務部 情報局長으로 있었을 때 1年前부터 林炳稷長官이 景武臺에 가서 李承晚博士를 만나고 오며니 單獨으로 저를 불러다가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서 國民들에게는不安을 일으킬테니까 實情을 다 말 못하지만 蘇聯이 北韓에 많은 무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南載熙 議員

「야크」戰闘機를 주었는데 우리비행기는 연습기 6臺밖에 없고 또 「탱크」를 주었는데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고, 北韓은 155mm大砲가 있는 데 우리는 105mm砲도 없다. 그래서 以北이 南侵을 하면 우리는 濟州道나 西太平洋으로 쫓겨 가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美國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심지어 李範奭將軍이 尹副議長 잘 아시지만 山岳地帶에 오는 敵軍을 막기 위해서 騎馬隊를 조직해 놓았는데 이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式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은데다가 美國의 애치슨 國務長官이 極東 防衛線을 그을 때 韓國을 아주 빼놓고 日本 範疇로 래서 臺灣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 최후로 國民이 어떻든 현재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美國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美國에는 親日派도 있으나 아직도 反共·民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하고 통하는 사람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專門적으로 말하면 「메모」.....그때는 國家를 위한 「메모」이지요. 建國을 하고 또 反共을 위한 「메모」.....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심부름을 해라! 그래서 어린 사람이 심부름을 다닌거지요. 各政黨과 國民會와 勞總과 學生團體와 심지어 제가 「크리스챤」이고 그러니까 教會團體까지 심부름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호텔」 맞은 편에 美國大使館이 있을 때 大使館앞, 市廳앞, 서울運動場, 南大門의 各地域에서 「메모」를 하는 장면들을 영화로 찍었습니다. 그것을 편집한 것이 「싸우는 大

韓」이라는 記錄映畫가 되어서 제가 몇군데 外國에 들렸는데 「샌프란시스코」總領事館에 제가 「카피」해 드린 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國際會議에 가서 들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時間에 어떤 모양으로 올는지 모르지만 南侵의 위험이 아주 極度에達했다. 그리고 戰爭이 벌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위험속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직책이 情報局長이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알았죠.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내가 美國에 있을 때 太平洋戰爭이 났는데 美國 政府에서 내가 지금 神學을 研究하고 있지만 日本의 軍國主義, 帝國主義가 타도되지 않으면 大韓民國의 獨立도 없고 또 基督教의 自由도 없다. 지금 神社參拜 강요를 하고 탄압을 하고 殉教者를 내고 있다. 그래서 教授들하고 相議했더니 學校는 언제든지 돌아오지마는 돋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내가 美國 政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美陸軍本部 情報局과 司法省에 있다가 나중에 戰時 情報局 (OWI)이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한 때 제 밑에 20여명의 요원들과 아나운서를 두고 방송을 했습니다. 韓國은 獨立할 것이다, 日本 사람들은 항복하라는 등 獨立運動을 戰時에도 돋는다는 마음으로 도왔고 해방되어서 나올 때는 새로 建國되는 韓國을 돋는다는 뜻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韓國에 빨리 나오기 위해서 美軍屬으로 나와서 美軍政廳에서 일했지요. 그때 軍政長官으로 「현취」가 「캘리포니아」大學의 先輩였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았어요. 獨立이 되면서 아까 말한 李範奭將軍, 張澤相씨, 尹致暎先生 이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처음엔 外務部情報局長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太平洋戰爭때에도 獨立運動을 했다는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지마는 내가 國會에 나가서 國民啓蒙運動을 하고 國會를 통한 國際外交活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建國初期에 다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國會議員으로 나가는 것도 建國初期에 하나의 獨立運動이다. 나도 獨立運動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왔고 누구나 外國에 있으면서 우리 大韓民國은 危機에 처해 있다. 모

## “6·25가 있었던 第2代 國會는 歷代國會中 政治勢力이 가장 多樣했던 만큼 여러가지 教訓的인 얘기가 많아”

르는 사람이 많지마는 北韓이 南侵을 언젠가는 하면은 굉장히 危險하다. 濟州道까지 끊겨가야 할 판이다. 그럴때에 國際外交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外國의 援助를 받아오는 길이 아니면 危殆하다. 내가 貢獻할 수 있는 길은 國際會議에서…… 國內問題는 다른 분들이 다 整理하시고 建國初에 여러가지로 發展시켜 나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國際外交活動을 해서 外國의 힘이 이런 危機의 韓國을 돋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國會에 들어가서도 우리 지금 尹副議長 아시다시피 外務委員長을 세번 하고 주로 國會에서도 外交方面을 제가 도왔지요.

그러니까 6·25事變이 나가지고도 아까 말한… 그런 뜻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司會：雲耕先生님은 制憲서부터 하셨습니다마는 2대때…또 鐵驥將軍하고 路線이 많이 같으셨고 나중에 2대때 商工部長官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그當時에 先生님이 생자하시던 일과當時의 政治的인 狀況 또는 政治的인 氣象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李載灝：나는 制憲때 했으니까 2대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만 두죠. 할 얘기가 많을 것 이니까…(웃음)

○司會：青谷先生님은 憲法起草專門委員이셨지요? 그랬다가 2代議員으로 나가셨고 또 竹山先生하고 상당히 가까우셨는데…… 아주 政治的인 성향이 다양했었습니다.當時의 얘기를 좀 해 주세요.

○尹吉重：모두 그때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6·25事變나고 2代國會가 召集이 되어서 死守決議를 하고…

○司會：그러면當時에 서울을 벗어나서 大邱로 피난가셨던 議員이 있고 또 피난을 못가고 서울에 殘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또 나중에 2代國會에서는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을 特別調查를 하느니, 審查를 하느니 뛰니하여 상당

히 까다롭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때 서울에 滯留하셨던 海陽先生님 그때當時의 얘기를 해주세요.

○洪淵燮：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6月 19日 開院式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꼭 1週日만인 6月 24일이 土曜日이에요. 그래서 나는 春川이 내 故鄉이니까 春川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룻밤 자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6·25가 터졌어요.

警察이 와서 차 이거 큰일났습니다. 以北에서 모두 밀고 나오는데 벌써 北쪽에 저 38線 부근에서는 소를 끌고 男負女戴해서 모두 밀고 나오는데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족들을 볼 새도 없이 가족은 너희대로 피난이라 나는 國會議員의 身分이니 國會에 가보아야 하겠다 해서 서울에 올라왔지요.

6·25날 겨우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서울은 벌써 戰爭마당입니다. 그때만 해도 車에다가 모두 위장을 해 가지고서 냅다 달리는 등 서울이 평장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고서 그 이튿날 26日 國會를 열어서 政府側의 國防部長官과 주로 蔡秉德參謀總長의 證言을 들었읍니다.

그 당시 문제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以北에서 밀고 내려와도 이 쪽에서 만반의 態勢를 갖추고 있으니까 절대로 서울에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고 능히 물리칠 수 있읍니다하고 큰소리 꽝꽝 장담했읍니다.

그래서 그날은 國會에서 그렇게 情報를 듣고 또 參謀總長이 나와서 壯談하는데 그것 아니라 할 수도 없었지요. 그날 國會를 散會하고 27日 새벽 3時에 다시 召集을 했습니다. 緊急召集을 했는데 國會에 나가보니까 그때 國會는 中央廳안의 下層에 있었어요. 過半數가 채 안되었어요. 내 생자엔 約 80名 나왔던가 이랬읍니다.

定足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行政府에 가 보자. 그래서 代表로 그때 張澤

相副議長하고 서넛이 간 것으로 압니다.

大統領官邸도 들어갔다 나오고 行政府에도 알아 보고 했더니 벌써 다 水原으로 갑읍니다 이런 얘기에요.

行政府에서는 거의 南下하고 비어 있었읍니다. 그러니 國會만 남았어요. 그러면 國會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國會를 열어 議論을 시작했는 데 서울市民을 그대로 방치하고 南下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만 避難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서울을 死守하는 決議를 해야 한다는 것 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날 情報는 9時면 北僕軍이 들어 온다는 것이에요. 9時면 서울에 들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더라도 우리는 死守해야 된다 그래서 死守決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合法的으로 過半數出席이 되어서 決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도 확실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死守決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散會를 했어요. 나같은 시골서 처음 當選되어서 올라온 촌닭이 알지도 못하고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러니 死守決議를 해놓고 汽車타고 도망갈 수는 없고 점점 情勢가 진박해 지는 것 같아요. 軍人們이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旅館에 있다가 旅館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麻浦의 내 동서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7日에도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오고 李博士의 錄音「테이프」를 계속해서 트는 것입니다. 萬般의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市民은 안심하라는 이런 錄音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서울市民이 사실 많이 拉致를 당했다면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한 것은 李大統領의 錄音「테이프」 때문에 많이 당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려나 누가 그것을 들었느냐? 그런 錄音「테이프」를 어느 機關에서 누가 들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해명이 안 됐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共產黨이나 左翼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責任者가 누구다 하고 收復한 다음에

도 그 사람을 처단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그것이 나는 오늘날까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28日 새벽 2時에 北僕軍이 들어 왔읍니다. 麻浦區에는 3時에 들어왔어요. 3時에 따르로 機關銃을 쏘고 야단 났는데… 그 다음에는 國會議員 「뱃지」 떼어서 땅속에 묻고 中衣 잠방이 하나 언어 입고 맥고모자 하나 구해 쓰고 도망 다니고 한달동안 숨어있는데 집집마다 찾아 수색하는 통에 체포를 당했읍니다.

이것 참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狀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소위 나같은 사람은 死守派다 戰留派다 말하지만 날더러 얘기를 하라면 나는 死守派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숨어 있다가 언어억을 데가 없어 城北區 땅네집을 찾아 갔는데 자다가 밤중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꼼짝없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中央圖書館 書庫가 바로 留置場이었읍니다. 北僕軍의 留置場이에요. 거기 들어 가서 1週日동안 붙잡혀 있는데 물은 주지않아 오줌을 두번도 못 누었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 심리적 고문을 밟았읍니다. 이보다 더한 捷問은 없었다고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동안 붙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밤중에 나오라고 해서 보따리를 들고 나왔더니 성남「호텔」에 國會議員들이 모여 있는데 당신도 國會議員이라니 거기에 가서 같이 일하겠느냐 그래요. 죽을 지경인데 안 한다고 그러면 겠습니까? 그래서 가 보겠다고 그랬더니 自白書를 쓰라고 하기에 할수없이 써냈더니 신발 가지고 맥고모자 들고 나오라고 하고는 지프車를 태우더군요.

성남「호텔」에 내가 42번으로 등록을 했어요. 나 들어간 다음에 더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 다섯입니다.

47名이 성남「호텔」에 있었어요. 한달동안은 「오토밀」도 먹이고 대접을 잘 합니다. 한달 후에는 食糧이 떨어지니까 도리가 없이 班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나는 敦岩洞에서 붙잡혔는데 敦岩洞은 趙素昂씨가 班長이에요. 그래서 나는 趙

## “애치슨 美國務長官이 極東防衛線을 그을 때 韓國을 아주 빼놓고 日本을範疇로 해서 臺灣으로 확정했다.”

趙素昂씨 집에 가 있는 것에요.

○司會：全體 끝장인 議員들의 斯長이에요?

○洪淵燮：아니에요. 區가 있어요. 아파 區가  
한 15개 있었어요.

○司會：居住地에 따라서지요?

○洪淵燮：예. 그래서 밤이면 地下室에서 이을  
을 갖다가 쓰고 우리 말을 들여 보내서 放送으로  
戰況을 듣는 것에요. 그래서 이튿날이면 趙素  
昂씨한테 가서 報告를 하는 것에요.

지금 趙素昂씨를 어떤 사람은 左翼이니 共產  
主義者니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 집에는 北僕軍들이 꼭  
銃을 들고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꼼짝 못하  
지 않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6·25라는 경험을 당하다가  
여하간 仁川 上陸만 했다하면 도망가려고 세군  
데를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붙잡혀간  
사람이 26名이 되고 21名이 도망을 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趙素昂씨 동생 趙時元議員도 도망가서 살았어  
요. 그 분은 감시를 안 하니까… 그런데 趙素昂  
씨는 北僕軍들이 銃을 들고 딱 그 집에 把守보고  
서 있는데 도망갈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拉致  
된 것입니다.

○司會：현재 記錄에는 27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淵燮：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무시무시한 捷  
間도 당하고 벌의벌 일 다 겪고 6·25를 치루었  
습니다.

○司會：세 분 先生님 중 6·25 그 당시에 個人的  
으로 겪었던 일을 한번……雲耕先生님 말씀하시  
지요.

○李載灝：6月 26日 國會에서 連絡이 와서 새벽  
에 갔더니 벌써 아까 말씀했던 死守決議를 끌  
냈고 해서 숨으려고 그 때 돈으로 萬원인거에  
요. 하여튼 한동치…… 萬원이면 지금 10萬원  
보다 나을 때니까 꽤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孝子洞 조그마한 집에 우리 아는 사람  
이 있었어요. 남이 보면 우리 친척이라고 하지  
않는…… 거기서 숨으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있는데 선인장 화분이야. 선인장은 물을  
안 주고도 사는 것이니까 화분을 엎어서 쓸어가  
지고 그 화분속에다가 萬원을 집어 넣고 도로 선  
인장을 심고…… 물론 현옷 입고 麗裝을 해서…  
그리고 거기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  
고 집안식구는 내 選舉區가 始興이니까 강진너  
그리로 내보냈어요. 結果的으로 다 못갔어.

그런데 밤 7時가 되니까 저 教岩洞쪽에 碲을  
리는 소리가 요란해! 그래서 孝子洞 이웃 사람들  
이 안달이 생겨서 오래 못 있겠읍니다. 내가 있  
기로 한 집主人이 마침내 避難간다고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驛 앞  
東子洞에 내 아는 사람 집 앞에 가서 오락가락  
하면서 거리를 내다 보니 서둘러 避難가는 市民  
들의 行列이 린이 없어요.

그래서 12時까지 참다가 그 집에서 일하는 小  
童이 한강건너 사람인데 그애 하나를 데리고 漢  
江人道橋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갔지요. 그랬더니  
화하고 불길이 올라와! 크게 爆發할 때에 가까  
운 데 있을 쳐에는 크게 털리지를 않아군요!  
우리 사람의 고약의 能力이라는 것이 위낙 큰  
평음은 제대로 안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가면 무리들이 딱 멈춰! 그런데 그중에는 美軍  
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질이 막혀서 멈추고, 그  
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그 멈춘 속으로 걸어가  
보았더니 진거리에 불이 붙고 있어요. 사람은  
벌써 거기에 벌로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爆破  
한 그火力에 의해서 漢江人道橋 橋干들이 곤  
두박질 쳐서 강바닥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리  
고 「아스팔트」가 불 타는 것이에요. 可燃性이  
강한 것인가 타는 것인지요.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漢江다  
리 아래로 내려 갔더니 나룻배를 여러개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軍人們이 와서 나룻배를 하나 끌어 가지고 밭려고 그러더구만. 그런데 워낙이 여럿이 타니까 배가 물에 잠겨 버려. 그래서 내가 어려서 學校다닐 적에 나룻배를 저어 본 일 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나하고 떠리고 가던 아이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셋만 타시오! 이 배는 다섯 이상은 못 타오. 갔다가 또 운데니까... 그랬더니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그 때는 이미 漢江이 洪水가 나서 水位가 불어서 물살이 여간 세지 않아! 그래도 이것을 젓고 漱江을 건넜어요. 漱江을 건너가면 저쪽 다리 꼭대기에 水位 재는 塔이 있지 않아요? 그 옆 꼭대기 절벽에 가서 겨우 달았습니다. 그리고 永登浦까지 또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날이 밝아! 서울市內는 콩 볶듯 하고 이것은 아까 洪議員님 말씀처럼.....

거기 가서 아는 집에 들어가서 身分證明書는 그 집 천장속에다 갑추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피난을 간대도... 繖纖玉手의 선비, 얼굴은 하얗고... 너 뭐하면 놈이냐 하면 到處에 「계릴 라」와 「빨치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돈 1萬원은 화분 속에서 꺼내오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달래서 그 집에서 찬보리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고 하여튼 아침 5시에 安養까지 갔는데 그 安養이 왜 이렇게 멀어요. 걸어가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安養 집에 들러서 우리 어머님이 계셨으니까 하직인사하고 걸어서 水原까지 가서 水原에서... 거기서 汽車를 탔지.

○司會: 水原은 아직도 占領 안 당했었나요?

○李載灝: 아니 漱江을 아직 안 건너 왔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짐짝처럼 실려서 大田으로 갔습니다.

大田이 南下한 國會議員들의 第1次 集結地... 우연한 集結地입니다만 이것은 指示에 의한 것 이 아니고.....

29日 아침에 그곳 大田道廳會議室에서 만났어요.

○司會: 大田에서 國會가 열렸지요?

○李載灝: 國會가 열렸다는 것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黃聖秀: 그 대목을 제가 말하지요.

25日 6·25事變이 나고 26日 「미장 그릴」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和信 앞에 못 가서..... 거기서 會議를 했는데 「야크」飛行機가 와서 機銃掃射를 했어요.

그린 事態인데 27日 밤에 龍山警察署에서... 제가 龍山區出身이니까... 자프차에다가 「캄프라치」하느라고 나룻일을 잔뜩 벌어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國會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찍 갔지요. 서울市內이니까..... 제 記憶으로는 行政府를 가본 후에 死守決議를 한 것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死守決議를 해 가지고 그 通知를 大統領과 行政府에 알리려 갔어요. 가보니까 전날 밤에 行政府는 모두 大田으로 汽車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각 長官들이...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왔어요. 이것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死守決議를 했는데 死守決議를 받아서協力할 行政府는 벌써 전날 밤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가지고 아침에 이제 말한대로 9시면 서울을 占領한다 하는데 7시경에 그냥 뿔뿔이 헤어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中央廳 앞에서 葛月洞에 있는 우리집 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막은 편이 蔡秉德씨 宅이에요. 그래서 건너가서 어떻게 된거요 그랬더니 빨리 漱江을 건너십시오 하더란 말이에요.

「여보시오 당신 어제 國會에 와서는 아주 敵을 議政府 밖으로 駁退했다면서 이것이 뭐요?」하고 따졌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黃議員! 평소에 나도 그런 거짓말 처음 해보았어. 民心이 소란된다는 데, 그렇게 안하면 누군들 어떻게 하겠오? 그러니 빨리 漱江 건너시오!」

그래서 나는 12食口를 싣고 漱江을 건넜어요. 蔡秉德씨 덕택으로 한강을 건너 水原가서 水原農大教授인 이태현長老宅에 家族을 두고 「라디오」등 뭐 좀 가져올려고 다시 저 혼자 올라오니까 벌써 漱江이 막혀서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行政府에서는 모두 南下하고 비어 있었읍니다. 그런 데 國會만은 남아서 首都死守決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平澤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29日 大田道廳으로 갔읍니다. 政府가 그리로 옮겼다니까 道廳에 가면 알려니 하고 가는 도중 인데 對美關係 問題가 거기서 나옵니다마는 「무초」大使가 「지프」車를 타고 와요. 오다가 「지프」車가 넘어졌다면서 흙투성이가 되어서 나와요. 내가 내려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손을 붙잡고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초」大使와 나는 道知事室로 갔읍니다. 거기에 가보니 閣僚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交通部長官을 비롯해서 英語를 잘 모르는 閣僚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무초」大使가 6·25事變에 대한 美國政府의 태도를 처음 저의 입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에요. 美國은 6·25事變을 겪고 있는 韓國을 돋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美國飛行機가 敵의 補給地를 爆擊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敵의 進軍을 遞斷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일 아침에 道廳會議室에서 臨時國會를 개최하자 하는 決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믿고 친구집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가니까 GHQ 標識를 단 美軍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美國서 나올 때 東京 「백아이」司令部 (General Head Quarters)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잘 알기 때문에 백아이 司令部 軍隊가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 「백아이」司令部 軍隊가 왔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國會와 行政府가 다 全州로 가버렸다는 거에요. 지난 밤새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會議에 모일 줄만 알고 왔더니 國會議員과 行政府는 이미 全州로 가고 美軍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全州로 갔어요. 그랬더니 全州에서 또 移動했다는 거에요. 그날 저녁에 裡里에서 放送을 들으니까 政府는 大邱로 갔다 그래서 大田으로 안가고 故鄉이 全羅道이기 때문에 家

族 빼리고……千辛萬苦 끝에 麗水・三千浦로 해서 大邱로 왔어요. 大邱로 오니까 申性模씨가 國防部長官이고 丁一權씨가 參謀總長인데 國會議員이지마는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니 國防部長官의 顧問證을 하나 주어군요. 그런데 大邱 내려가니까 또 丁一權 參謀總長이 參謀總長室의 顧問이라는 證明을 또 해주어요. 現役 國會議員이니까 다른 職分은 줄 수 없고 顧問이라는 職名을 주었읍니다.

國會議員도 戰爭에는 戰爭을 듣는 것이지 무슨 거기서立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심부름을 하는데 우리 尹副議長은 잘 아시지마는 國會事務總長 朴某씨는 日本에 가버렸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鄭雲近次長은 아주 事務에는 익숙하지만 英語를 못했읍니다. 그러니 申翼熙議長이 英語하는 사람을 빼리고 倭館 玉浦里로, 永川으로 慰問도 다니고 視察도 다녀야 되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事務總長 대신 빼리고 다닌거에요. 실지로 法司委員長으로立法議員役割은 지금 尹副議長이 하시고 外交上役割은 제가 하고 그래서 尹副議長하고 그때 學生들이雙璧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申議長 모시고 一線으로 전부 뛰어 다니면서 격려를 했읍니다. 그리고 丁一權 參謀總長室에서는 새벽 1시가 되거나 2시, 3시가 되거나 戰爭 「뉴스」가 오면은 거기서 그냥 翻譯을 하는 것이에요. 翻譯・通譯士가 따로 없읍니다. 國會에서 그것을 전부 一線으로 주었읍니다. 林炳稷 外務部長官이 國會하고 行政府 사이의 연락판도 네가 하라고 해서 外務部, 公報處, 國會, 「위커」司令部, 「유엔・클리스폰먼트」(通信部)로 빙 돌아 가지고 옵니다. 또 國會가 열리면 나가서 戰況報告도 했읍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제가 심부름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滄浪張澤相先生이 東亞放送을 하면서 大邱死守의 恩.

人이 趙炳玉博士라고 하지마는 그 뒤에 또 하나의 恩인이 있소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放送을 이왕 한 것이니까 얘기인데 제가 「유엔·클리스 톤먼트」事務室에 갔을 때에 「뉴스워크」記者가 大邱에서 「유엔」軍이 後退하는 作戰圖를 그런 것을 내게 보여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申議長과 李大統領에게 드리고 趙炳玉씨에게도 드렸더니 「유엔」軍이 大邱에서 後退한 作戰을 한다고 直感하며 절대 안된다! 그래서 李博士가 「해리나인」 혼자 타고 永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大統領을 危險地帶에 보낼 수 없음이라고 만류했읍니다. 그러나 李大統領은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나라 땅에 가는데 너희는 뭐냐라고 하면서 永川서 美軍, 「유엔」軍이 後退했지마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國軍을 격려해 가지고… 永川線을 保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大邱를 死守할 때에 趙炳玉 内務部長官이 平常히 一線에서 활동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大邱와서 大邱를 지키고 大邱 文化劇場에서 國會를 열었읍니다.

國會議員이 상당히 모였는데 하루밤에는 大邱驛前에 박격포가 떨어 졌읍니다. 그러니까 大邱도 위험하다 해서 다시 國會를 釜山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벌써 大邱에서 釜山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잘 때에 나는 參謀總長室에서 領問으로 일했다는… 그때에 金貞烈將軍이 空軍 參謀總長인데 그때 한 방에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 海軍參謀次長하고도 같이 있다가 釜山으로 피난을 간 것인지요.

○司會：青谷先生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尹吉重：조금 색다른 얘기일지 모릅니다마는 그날 형편은 그랬는데 다만 死守決議하면서 나는 先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왜 先輩를 많이 알게 되었느냐하면은 過渡立法議員할 때 準備委員들을 내가 모시고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내가 過渡立法委員會事務處組織을全部 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全奎弘씨가 事務總長이었을 때 내가 이제 機務課長兼立法起草局長인가 그것을 하게 되어서 開院式이며 事務處職制 만드는 것全部 했기 때문에

그때에 立法委員會에 들어 왔었던 獨促國民會議하고 中間派關係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制憲 2代대 憲法關係도 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先輩들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6·25가 이렇게 터지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여간 당황되지 않아요.

나는 꼭 남기고 싶은 얘기라서 하는데 死守決議를 그날 그렇게 하고 海公先生한테도 갔다가 사람을 總務處에 보내 代表를 몇분이 가서 行政府의 態度를 보려고 갔더니 벌써 다 後退하고 없다고 하니 아주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形便속에서 내가 만난 분이 있어요.

元世勳씨, 趙秉昂씨 만나고 물론 海公先生도 만나 뵙고 個別的으로 曹奉岩先生도 만나 뵙았읍니다.

이번 경우에 死守決議도 했고 行政府가 後退하고 國會議員으로서 아무 武器도 없이 어떠한 態度를 取하는 것이 愛國하는 걸입니까? 先輩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지各自 얘기가 全部 달라요. 참 재미난 것을 보았는데 中國에서도 망할 때 보면은 그래도 重慶에서 어디를 잔다, 政府가 어디 잔다고 하면서 後退를 했지요. 이렇게 夜間逃走하듯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國民을 내팽개치고 가는 政府가 어디 있느냐 이런 悲憤慷慨의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具體적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고 하는 생각은 모두 없었읍니다.

사실 그때 2代 國會議員 選舉라고 하는 것을 민손으로 했단 말이야.

車 없이 했으니까 뭐 車가 있나, 서울 올라오니 옛집은 다 폐허가 되고 쌀이 한말 있나, 이런 處地에 있는데 무슨 車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版局인데 海公先生을 모시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분과 約束을 했어.

先生님 저 혼자라도 데리고 나가십시오. 아, 그래 그렇고 말고, 내가 알만 어려워도 내가 데리고 나가지 라고 했읍니다.

그렇게만 믿고서 터벅 터벅 걸어서, 그때 내가 東子洞에 살았는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난준비가 벌써 했어군요.

## “엄청난 事態를 당한 政治家로서는 政局을 바라보는 問題에 특히 긴 眼目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 그대 曹奉岩先生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치프」車를 타고 오더니 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가느냐 벌써 해가 뜨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집에까지 가는 질이라고 했더니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유가 없다. 명쾌해요.

曹奉岩先生은 결국 共產黨으로 몰려서 世上을 떠났지마는 절대 이것은 後退해야 된다. 무슨 死守決議냐! 死守決議라고 하는 것이 무슨 文人들이, 國會가 어떻게 武器 가지고 있느냐. 政府 따라서 가야하고 이것은 運命的이다. 政府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고 國會議員된 이상 이것은 꼭 政府 따라서 죽도록 싸우는데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얘기가 이것이 지금 모두 풍지박산 되어서 그런데 總務處에서 機密文書나 다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國會도 이렇게 魂飛魄散해 하는데 國會文書를… 지금 鄭雲近씨가 功勞者입니다. 次長이었었는데… 벌써 다 도망가고 난리났는데 그런 것 어느 결에 쟁기겠어요.

그래도 國會文書를 전부 쟁겨서 나중에 漢江다리 爆發 직전에全部 쟁겨 나갔답니다.

당시에 白承旭씨를 높이 評價하더군요. 白承旭씨가 그때 內務部長官이었는데 후에 여러 가지 비난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愛國心이 강해서 글까지 自己責任을 完遂해 가지고 國家의인 機密文書를 다 가지고 나갔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군요.

그것을 내가 感銘깊게 들었고 後退한 얘기는 모두 같습니다마는 그런 엄청난 事態에서 문제를 보는 政治家로서 政局을 바라보는 문제에 관해서 특히 眼目이 커어요.

최상되는 것은 그때 내가 家族들한테 最後遺言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家族들 남겨 놓고

서 가는 것이 급하니까 갔지, 愛國心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가족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自動車가 있나, 배가 있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洪滄燮：이것은 꼭 내가 해두어야 할 말이 되어서 합니다.

서울 殘留派의 한 사람인데 원당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國會職員으로서 拉北당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 國會議員이 어떻게 되어서 27名이나 拉北을 당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南下했던 國會議員들이 9月 28日 收復해 가지고 와서 殘留派를 審查를 했어요. 내가 自白書를 써낸 사람인데 呂運弘같은 사람은 그때 서울市 黨委員長하던 이승업이가 조카사위입니다. 그래서 情報員을 놀 데리고 다녀서 情報를 들어다가 전해 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도 共產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證明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呂運弘이를 살리는데도 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黃聖秀：中央廳에서 死守決議하고서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말 이외에는 서울 國會議員들 한테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個別的으로 모든 행동을 했어요.

○洪滄燮：아무리 급해도 國會議員에게는 通報라도 하고 後退해야 옳지 한마디도 안하고 자기네들만 後退한다는 것은 도저히 理解가 안가요. 國會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民主主義 國家라면 적어도 3權이 分立되어야 하고 3權이 分立된 가운데의 國會議員이라면 消耗品은 아니고 備品의 하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國會議員이 있음으로써 民主主義가 된다는 教訓을 얘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27名이 아니라 그것이 過半數쯤 되었더라면 重大問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國會議員이 過半數만 되었

더라면 저놈들이 國會를 열어 가지고 決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은 行政府와 國會議長團도 전부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9·28收復後에 서울殘留派審查를 하게 되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司會：審查關係는 海陽 선생님 말씀이 맞는군요。

殘留議員 중 北傀에 自首한 議員만 審查對象으로 決定하고 約 2個月間에 걸쳐 審查活動을 계속하였으나 結果報告가 非公開會議에서 행해졌으며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尹吉重：내가 審查委員의 하나였기 때문에 아는데 다만 한 가지 國會事務處 鄭雲近次長이 그렇게 수습을 해서 후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國會事務處職員들이 拉北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國會議員은 이름있는 사람들이니까 명백하게 나오지만 차유동씨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도 事務處關係로 國會에 있다가 拉北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뚱지박산인데 이유가 없었지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2代 國會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저같은 사람은 늘 人道主義的인 思考위에서 문제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李先輩도 여기에 계시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고 제 생각은 어쨌든 敵이 軍事行動으로 占領한 지역에서 附逆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軍事的인 힘에 의해서支配된 형태에서 어떤 사람은 附逆 안한 사람이 되어서 평장한 것으로 말하지만 附逆을 안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총칼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끌려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統治權이 미치지 못하는 형태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대하게 하자 해서 法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私刑禁止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私私로운 刑을 禁止하자 등의 관점에서 附逆行爲者 特別處理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敵治下에서 附逆을 했더라도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여기서 그냥 外部

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附逆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處斷하자 하는 식의 그것은統治權이 미치지 않은 형태에서 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형태에서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載灝：이해할 수 있을 뿐이 아니고 소위 民主主義를 신봉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것은 不可抗力狀態下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추궁해서도 안 될 것이고, 1·4後退때에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짐이 된다고 기차지붕 꼭대기에서 눈위에다가 먼저 버리고 잘 정도였으니까 6·25慘狀이라는 것은 전국 人類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그러한 막다른 굴목에 몰아 놓는試驗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肉親이니 무슨 同鄉, 師弟, 友情 그런 것이 어떤 평화로운 正常的인 상태속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네 모가지 내 놓을 거냐고 달려 들면서 그것을 요구하는데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총을 든 北傀軍이 原稿를 써 주면서 이것을 放送을 해! 하면 방송 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이들이 다 일명생 反共을 하면서 걸어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江하나 먼저 넘어서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움이나 憎怒를 앞세운 心情으로 그들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그랬어! 聖經에도 물을 먼길 사람 나서보라고 말씀했는데 結果적으로는 아까 南議員 말씀하신 句節도 기억이 남니다마는 아마 責任이라든지 이런 것이……

○司會：青谷先生님. 委員하셨으니까 그 과정 잘 아시겠네요.

○尹吉重：왜 그런 문제가 提起가 되었느냐, 이것은 정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더군요. 왜냐하면 國會議員 過半數가 出席이 되어야 開會宣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7名이 拉北이 된 상태하에서 늘 國會議員 定足數의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러면 國會議員 定足數를 정해야 되니까 定足數에 관한 法律을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審查基準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拉北이 된 것을 認定을 하고 그 確認節次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

## “私刑禁止法을 만들어 私私로운 刑을 禁止하자는 관점에서 附逆行爲者 特別處理法을 만들게 되었다.”

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은 이렇게 形式이라도 하여 가지고 문제를 整理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審查委員會가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 사실 자체는 전부 文獻을 봐도 정말 우리가 豫想한 것과 같아요. 뭐 張建相씨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분들도 그 환경 속에서 갖은 곤장을 다 겪으시고 祖國이 民主主義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司會：拉北된 27名은 현재 대개 死亡하셨겠지요? 生存해 계신 분이 몇명 안계시겠지요?

○洪滄燮：龍仁出身 柳驥秀씨는 別世했다고昨年엔가 新聞에 났더군요.

○司會：현재 北韓 新聞이나 放送에 27名중 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계속해서 大田하고 大邱에서의 國會運營狀況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李載灝：大田에서는 政府가 大田으로 갔다 하니까 그리 모인 사람들이 아침에 한번 모였었습니다. 29日 아침이지요. 더 모여들테니까 어느 정도 체워보자 해서 放送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旅館에서 자고 있자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일부는 全州로 갔는데 그 全州에 있는 사람도 다시 大田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30일 밤 1시경 내일아침 7시까지 大田驛으로 나와서 전부 大邱로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大田驛으로 나갔더니 大邱로 가는 客車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나 개인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 버렸어! 旅館에서 밥을 먹고 거리에 나갔더니 아는 사람을 더러 만났는데 大田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어제 저녁에 政府가 全州로 옮겼다는 말이 퍼져나가서 그냥 男負女戴로 전부 개미집 소금맞고 헤어지듯 그런 상태더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떠가! 그것은 美國 비행기가

北上하는 것에요. 그 비행기는 平澤驛을 그날 誤爆한 일이 생겼던 것에요. 그런데 아는 光州 사람을 大田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트럭」을 가지고 서울에 무엇을 운반해 주고 光州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 「트럭」에 나 좀 태워달라고 해서 光州로 갔습니다.

가다가 蘭嶺에서 그 때 木炭車였는데 그 車가 고장이 났어요. 蘭嶺이라는 데는 활치산이 많이 나오는 땅인데 도중에서 하루 자고 光州로 갔어요.

光州에서 누가 웃을 한번 줍니다. 共產軍이 아직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고 그래서 全州갔던 사람, 大田에 있던 사람 다 大邱로 몰린 것 이지요. 그 선택은 후일에 보면 잘 한 거구요. 北僕軍이 湖南쪽으로 던쳐갔으니까…… 光州에 있다가 거기에서 釜山으로 가려고 麗水로 갔어요. 麗水로 갔더니 李始榮副統領이 거기 계시고 鐵驥將軍도 거기 계셨는데 海軍艦艇 하나가 李始榮副統領을 모시러 왔다고 해서 나도 그 艦艇을 타고 釜山까지 갔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 때 부완혁씨가 전방 냅개를 주는데 세상에 전방이 그 병에 맛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釜山으로 갔더니 大邱로 集結하고 해서 大邱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꽤 오래 있었지요. 그때 가지고 大邱에서 黃議員, 金東成씨, 鄭一亨博士가 소위 美軍 혹은 國軍의 戰況을 연락해 주는 「리에이종」(연락판)이 있는데 8月 14일에 B-29가 한 없이 올라왔어! 그것이 永川倭館, 이 쪽을 폭격해서 큰 승리를 했다고 報道가 되었지요. 그러나 8月 15일에서 16일 저녁까지 大邱市內에 硕소리가 들리고 洛東江을 건너서 花園쪽으로 敵이 몰려 왔어요. 그 전날 大勝利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런 일이 났어요.

그때까지 大邱 文化劇場에서 會議를 하는 것

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定足數 調整을 하고各 分科委員長을 選舉하고 그리고 釜山으로 내려가서 9·28收復때까지 釜山 신세를 겼지요,

9·28收復後에 여기 올라와서 1·4後退에 다시 내려가는데 그 후 精神이 좀 나니까 直選制選舉한다 뭐 한다 해서 釜山 政治波動이 슬슬 시작이 되고 그랬지요.

○司會：雲耕先生 말씀중에 李始榮副統領이 政府의 避難隊列에서 빠져셨다고 그러셨는데 당시 現役 副統領이 政府와 함께 行動을 안하고…… 안모시고 다녔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예요?

○李載漫：시행착오고 뭐고 없어요.

○司會：그래도 명색이 副統領인데 副統領을 모시고 가야지, 副統領이 政府의 避難길에서 빠졌으면 이상한데요?

○李載漫：國會는 國會議員보고 가자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火急한데 政府는 副統領보고 가자고 할 수가 있어요? 狀況이 正常的인 것 보다 조금만 심작했더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司會：職制上 副統領인데 大統領이나 閣僚들이 副統領을 안 모시고 避難가셨다는 것은…

○李載漫：부드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求禮 國會議員에 李判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많지 않은데 2代째 죽었지요.

敵이 湖南쪽으로 몰려오니까 이 사람이 「트럭」에다 家族하고 가까운 同志들을 싣고 求禮에서 河東으로 해서 晉州를 거쳐 釜山으로 가는데 그 때는 각 支署앞이라든지 郡界, 道界사이에는 江原道 옥수수 저장하는 것 같은 「토치카」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다보고 誰何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길다란 서까래 같은 나무를 빼어다가 길 가운데 버텨놓아서 지나가도 좋다면 그것을 눌러서 일으켜주고 그랬는데 河東 어딘가 가니까 그것이 있어서 그 앞에 車를 세웠어요. 憲兵과 警官하고 나오더니 “누구요?” 하면서 身分證을 調査한다고 하니까 身分證을 내놓고 “國會議員이요” 사흘인가 나흘밖에 못되지만… 그랬더니 警察官이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憲兵이 다가오더니 “뭐 國會議員이래? 이라고 警察官을 제치고 짹 달려들더니 “國會議員이야?” 아! 그렇

다고 했더니 이놈의 새끼때문에 國防部豫算을 짜아서 이 꿀이 되었다고 하면서 銃을 거꾸로 들고 달려 들었다고 그 사람이 國會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은 初代 國會議員들이 짜아 놓았다” 하고 나는 20일 國會에 들어갔다가 닷새만에 이끌 당했다고, 아니라고 하니까 警官이 그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빨리가! 이런 판인데 뭐 副統領이야 더 높은 분이지만 볼 수 있어요?

○司會：記錄에 보니까 7月 4日 大田 道廳에서 非常國會를 召集했으나 懸談會 形式으로 돼버려 黃博士님을 포함해서 非常對策委員會를構成했네요. 그레가지고 行政府나 外交使節들하고 긴밀한 連絡關係를 擔當해서 戰況을 有機的으로連結시키도록…

○黃聖秀：제가 아마 國會議員중에서 軍服을 제일 먼저 입은 사람입니다.

國會에서도 非常對策委員중의 한 사람으로 挑해졌는데 그 전에 行政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申性模 國防部長官, 丁一權씨는 나중에 大邱에 와서 參謀總長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戰爭 도와주는 사람이 恩人인데 黃議員이 恩人이라고 丁一權參謀總長이 나보고 手苦를 많이 했다고 그런 表現을 쓰더다마는 行政府에서 그렇게 避難과 보니까 솔직하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장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데가 美國아닙니까?

「택아더」가 東京에 있고 「무초」大使가 여기 와 있고, 그때 英語하는 사람이 극히 적고, 또 내가 外務部에 들어가기 전에 美軍政廳에 있었으니까 저더러 美軍連絡… 그러니까 「무초」大使, 「워커」司令官, 「던」將軍, 이런 사람과 連絡하라고 해서 美國 行政府에 連絡을 했지요. 그 때 推薦狀받은 편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美國政府에서 저를 認定해 주고 그래서 美國政府, 美軍司令部에 다니면서 또 記者들한테 들은 「뉴스」를 國會에 와서 連絡해 주고 美國과의 連絡만이 아니고 우리 國會하고 行政府사이의 연락도 했지요. 林炳稷長官을 外務部에서 직접 모시고 있었는데 公報處長이 空席이라서 내가

## “非常對策委員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行政府 와 國會, 美國을 다니면서 連絡官노릇을 한 것이지요”

일부분 公報處長 노릇도 했어요.

戰時니까 이것저것 할 것없이 돌아다니면서戰況報告도 하고, 連絡官 노릇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거창한 非常對策委員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行政府, 美國, 國會를 다니면서 連絡官 노릇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國會議員으로서 海公先生을 모시고 사파상자를 들고 一線慰問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一線觀察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國會, 行政府, 美國大使館, 美軍 司令部와의 連絡 또는 特派員들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外務委員長이 되니까 그 관계로 오는 분들하고 外國使節團接待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國會에서도 제가接待委員長이었어요.

韓國 國樂을 紹介하고, 심지어 어느 料理집이 어떤 분들을 잘 待接하는 것을 알 정도로, 내 信仰生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고 避難時節이니까 外交關係로 우리 집에도 「무초」大使를 비롯해서 많은 분을 請했읍니다.

○司會：對UN關係 对美關係에 그때 國會議員들 중 어느 분이 어떠한役割을 했는가 그것을 좀 整理해 주시지요.

○黃聖秀：그 때에 对美關係를 담당한 것은 역시 張澤相, 金東成, 그 다음에 UN關係는 그 당시 外務部長官인 林炳稷씨, 民間人으로는 任永信, 尹致英, 鄭一亨, 金英훈씨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美國出身 國會議員들이 군복 입고 「리에이종」을 한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연소하니까 連絡責任者로서는 제가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丁一權 參謀總長이 저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자기하고 뜻이 같다고 하여 私的인 얘기입니다마는 呼兄呼弟하고 형제간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金貞烈將軍도 지금도 형님 동생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서 戰況을 도우면서 外交關係도 돋고 봉사를 했지요.

國內政治의 立法이니 民主化運動이니 하는 것은 이분들이 맡아서 다하고 나는 外交에 힘을 썼어요. 外交關係는 다 같거든요. 戰勢가 어떻게 되느냐, 共產黨 물리치고 언제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맥아더」將軍의 仁川上陸作戰에 대한 「뉴우스」 이런 것을 提示, 연락하여 그 때는 國會議員으로서의 民間外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國會에서 費用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私財를 끌어다가 하기도 했지요.

○司會：國會議員들이 그 때 美國을 방문하거나 그런…

○黃聖秀：방문했읍니다. UN總會에 갔었읍니다. 正式으로 參加하지는 않았읍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입장을 밝히느라고 활동도 하고 그랬읍니다.

○司會：그 당시에 總理認准問題가 현안문제로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인데 그 狀況을 좀…

○李載灝：李範奭將軍이 國務總理를 내 놓지 않았어요? 그레 가지고 國務總理가 缺員이야! 李允榮씨를 李博士가 制憲때도 한번 내 놓았으나 國務總理가 認准이 안되고 그때 釜山에 내려가서 또 한번 내놓으셨어. 그래도 認准이 안돼! 白樂瀨씨도 나오고 또 안돼, 李甲成씨가 나와서 안되었는데 그것은 張勉博士가 그만 두고 張澤相씨가 되기 전에 한번 나왔다가 안되었지요.

그래서 國務總理가 없었읍니다.

○司會：申性模씨가 署理를 했지요?

○李載灝：署理는 많았는데 認准이 안되었읍니다. 李允榮씨도 서리는 했어요. 그 양반이 保社部長官을 맡았어요.

그 때 戰爭을 하면서도 國務總理 認准은 國會가 안해 주었다. 안해 준 것이 잘하고 못한 것 이 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2代 國會를 特徵짓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洪淵燮：滄浪先生 말에 의하면 鐵驥를 너무

키우면 곤란하다. 보통 백성들이 볼 때에는 李博士하고 鐵驥하고 딱 붙어 가지고 建國初期처럼 협력을 했으면 멋 있게 되었을텐데 너무 크는 것을 안 좋아하셔서 鐵驥를 누르니까 그 호름이 鐵驥를 그만 두게 하고 누구를 認准하느냐. 능력 있고 活動있는 사람이 戰時에 꼭 필요한데 鐵驥는 그냥 政治家일 뿐만 아니라 青山里싸움 아래 將軍으로 알고 있거든요. 軍事을 經營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쉬게 하면 누가 할거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섭섭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滄浪을 불러다가 鐵驥를 누르고 民心을 얻을 자신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滄浪先生님 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司會：그 이후의 얘기를 雲耕선생님이 더 해주시지요.

○李載漫：尹錫五씨가 總務處次長이었었지요? 그때는 내가 財經分科委員長을 하고 있을 텐데 國會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關係가 없는 사람이 차라리 쉬울 거예요.

關係는 있되 존경을 받는데도, 政治적으로 가깝다든지, 絶對過半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내놓아 보아야 안돼요. 戰時에 이렇게 하는 法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戰時니까 더군다나 안돼... 그래서 關係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駐美大使로 있는 張勉씨 같은 사람이나 혹 뭘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作故한 尹在根씨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張勉大使 指名이 나왔어. 우리가 李博士에게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고, 側近中の 한 사람에게... 그래서 張勉씨가 「비토」할 적에 國會의 까다로운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은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國會의 性格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 大統領直選제로 하려고 하는데 소위 院內 自由黨과 韓民黨이 합작을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張勉大統領 추대운동을 상당히 물고 들어 갔어요. 그런데 엉뚱하

게 政府에서 했다고 할까 李博士側에서 大統領直選제案을 냈읍니다. 나도 반대했읍니다, 19票밖에 안 나왔어요. 끌이 무엇이에요? 당황했거든요. 李博士의 國會에 대한 信任이 아주 全無하다는 것이 立證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은 張錫濬씨하고 尹錫龜씨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다가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고 나를 보고 좀 협조해 달라고 해요. 張勉씨가 움직이면 關係... 金永鉉이라든가 그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그것 戰爭 안된다 왜 안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參謀總長 자리 주고 그 參謀總長이 다른 생각이 있는데 武器 彈藥을 공급하면서 나 좀 이기게 해달라 하는 狀況인데 그 戰爭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張勉을 總理에서 내 보내면 되겠느냐 해서,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張勉씨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張勉에게 總理職을 내놓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싸움을 해야지. 누구든지 정돈이 되어서 협력도 하고 안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 후 얼마만에 後任 總理가 누가 되겠느냐? 누가 좋겠느냐? 國會에서 票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한 마디로 해서 短期決戰을 하려면 滄浪을 써라 그랬어요. 長期對決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는 무슨 變動이 생길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短期決戰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하고서 내가 서울로 올라 왔어요. 그랬더니 尹總務處次長에게서 特使가 왔어요. 滄浪을 하기로 할텐데 協力を 하겠느냐? 해서 협력하다 문이니 張澤相씨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고 노여움이 떠오르고 무엇이 떠오르든 간에 權力의 頂上까지 한번 가고싶다는 것이 日久月深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國會에 자기의 고유세력인 21名의 「新羅會」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틀후에 滄浪이 自動車를 보내서 나를 보고 꼭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李大總統 한테서 어저께 總理指名한테니 수락하라고, 사람이 와서 오늘 오후에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즉석에서 쌍수를 들어서 御命을 拜受하지 않고 왜 여기 계십니까? 했더니 내 條件이 人事權 일체를 자기에게 맡길 것. 그것을 안 받아 가지고는 일이 안될 것 같아서... 그것하고 무엇하고 이렇게 條件을 붙여서 달라

## “戰爭을 하면서도 國務總理 認准을 國會가 안해 주었다. 이것이 2代國會를 特徵짓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條件은 무슨 條件이요. 여기서 무슨 「폐성」하는 장난하는 거요? 17살 때부터 李博士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자랐다는 분이 李博士의 일이 國家의 일인데 무슨 條件을 단단 말이요? 李博士가 滄浪을 다 알아서 할 텐데…… 선생님!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條件은 무슨 條件이요? 나는 가겠어요 했더니 역시 雲耕 내가 잘 만났군! 그러더니 그다음 날에 다시 車를 보내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갔더니 어저께 밤에 내가 雲耕 이야기하는 대로 했어. 과분합니다.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奉公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곧 내려 가자는 거야. 票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같이 釜山에 갔어요. 5票差로 이겼지요. 그리고 한 6個月 했나, 그런데 그만 두고 내 놓으라고 그랬어. 滄浪보고… 古市進 事件으로 또 안 그만 둘 수도 없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張總理時節은 그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은 것이지요.

○司會：우리 戰時下에 있어서의 國會와 行政府와의 關係, 民主化라고 할지, 洪先生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黃博士님 말씀이 우리 青谷先生이 그 關係를 많이 하셨다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요.

○尹吉重：지금 생각하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國會議員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꽤 순진했다고 하면 순진하고 또 民主主義的인 情熱이 강했다고 하면 대단히 강했고, 그런데다가 사실 李博士에 대한… 獨立을 쟁취하고 建國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李博士를 숭양하고……

○李載溫：대단한 「프리미엄」을 주어서… 「프리미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었지요.

○尹吉重：그럼요. 다 인정하고 지금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반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心情이 대부분에 깔려 있었는데 이 6·25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아까 형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식의 비참한 戰爭이 일어 나면서 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行政府에 대한 위신이 완전히 실추가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內閣責任運動도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아무리 훌륭한 분이 이런다고 할지라도 역시 땅에 붙는 政治를 해야 된다. 사람이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지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간에 그래도 國民과 더불어서 政治를 해가는 過程속에서 잘못해도 자기 責任으로 느껴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부 玉皇上帝 폭대기 위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전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6·25放送 그렇게 나왔다는 그 자체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더군다나 또 나중에 防衛軍事件 문제가 터져나오고 또 그런 중에서도 여울한 사람, 罪人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것이 行政府에 대한 不信을 크게 조장하게 되었지요. 아무리 戰時중이라고 하고 아무리 훌륭한 愛國者라고 하더라도 이 분이 그냥 직접 政治하는데에는 이것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國會議員들에게 박혀 있었어요. 이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李博士를 反對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國家元首로서 앉게 하고 또 內閣責任制로 해서 실제 政治는 總理가, 누가 나서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이 첫번에 大統領制를 支持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여러가지 갈래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가령 張勉博士가 그

낳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鐵驥가 해야 한다든지 海公이 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생각은 다 조금씩은 다른 것이 있겠지만 李大統領 자체를 그냥 없앤다는 그런 것보다는 大統領은 계시더라도 하여간 실제 政治는 다른 분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공기였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反映이 되어서 이것이 民主化運動하고 관연이 되고 더군다나 그 어려운 戰爭 환경속에서 사람이 그냥 많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형태가 자꾸 非一非再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정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함부로 處斷하는 등 좋지 못한 事態가 되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들이 밀바닥에 깔려서 非常事態下의 特別措置법 같은 것도 國會에서 두번 세번 「비토」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3분의 2의 多數로 「비토」를 해버리니까…… 또 私刑禁止 같은 것을 만드니까 政府는 우리 지금 戰爭하고 있는데……

○司會：사형이 「린치」이야기지요? 「린치」……  
○尹吉重：「린치」이지…… 「린치」같은 것을 하니까 世界萬邦에다가 우리를 野蠻國家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 해서 政府나 李博士가 怒發大發해서 「비토」하고 그랬지만 그런 可能성이 있으니까……

결국 그런 法律들을 公布를 안 했읍니다. 政府에서는……

附逆者特別處理法 같은 것도 그래서 하고 그리고 가령 趙炳玉博士같은 분이 大邱死守하는데 상당히 功勞가 있다고 모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벌써… 가령 金潤泰議員 같은 사람을 共產黨으로 몰아서 그때 國會議員을 現役으로서 잡아가는 이런 일도 생기고 徐珉濤議員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가지 關係가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이런 君臨的인思考方式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이 國會議員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짤려 있는 基本 생각이었기 때문에 行政府하고의 協力關係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立法活動이나 뭐 다른 활동에 있어서 전부 政府를 章制하는 형태로 꾸

준히 나가게 된 것 아니나? 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政治現實 속에서는 안되니까 큰 政治波動도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強行하려고 하는 過程속에서 그런 激動이 생겼습니다.

○司會：그러면 2代 國會는 6·25의 戰爭努力을 뒷받침하는 일은 별로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李載溼：戰爭努力을 뒷받침했다는 것은 결단나는 쪽으로 끌고 가도 그냥 두는 것이 努力했다는 얘기인가……

소리만 들고 북북히 따라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設定이 잘못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것을 내가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30餘年的 세월이 지났으니까 말씀 인데 釜山 시절의 政治波動 당시에 內閣의 構成은 완전히 舉國內閣이었습니다. 張勉博士가 總理요 趙炳玉博士가 內務部長官이고 우선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李博士가 國會에 獨立促成國民會 사람, 大韓國民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50名當選되었지. 그래도 그 狀況下에서 直選制로 하자는 것이 19票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盲目的으로 李博士의 領導力과 現實的인 大統領으로서의 權限을 가져도 19票밖에 안나왔다고 그러면 國會라고 하는 것은 獨自의이라고 할까 좀더 批判力を 가지고 사태에 對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總理인 張勉博士가 主動이 되어서 그것이 123名이라고 하는 도장을 미리 받지 않았으면 直選制도 안 나오고 國會에서 또 한번 選出하는 方式이 되었을 거예요…… 2代 國會에서 2年되면 選出을 해야 했거든요. 大統領이 4年, 制憲議員任期가 2년이니까. 그러면 政治的으로 波動이 안 일어나고 그러한 상태속에서 戰爭을 違行하고 서울이 收復된 후에 일옹 戰爭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또 무엇이 나왔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狀況속에서 政治波動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狀況을 좀 성급하게 판단한 사람들이 문제를 提起한 바에서 나온 것이에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한 쪽에서는 戰爭하고 數百萬이 죽지 않으면 죽음에서 해매는 그 속에서 政爭을… 後世史家들이 李博士를 비웃어서 張博士라든지

“한쪽에서는 戰爭으로 數百萬이 죽음에서 헤매는 그 속에서 政爭을…… 이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다.”

또, 國會議員들도 결코 지혜롭지 못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의 發端은 그렇게 봐요.

○司會： 그러니까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그 6·25의 처참한 狀況속에서 準備한 것도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李載漫： 글쎄, 그것도 문제야. 李博士가 한번 直選制 「트라이」를 하려고 하다가 民主主義는 國民들에게 물는 것이다. 그 政治의 根源은……

그러니까 直選制다. 名分이야 좀 좋아요! 그 래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으면 19票 가지고는 완전히 단념할 수도 있었던 말이야.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 대항하고 준비하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한 것은 그것은 原點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데에서 일어나는 假想되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張博士가 그 분이 상당히 民主的인 점이 많은 분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戰爭을 수행하고 수습하는 데에도 李博士는 大統領, 關僚들은 與野 舉國內閣의 형태로 되었으니까 상당히 잘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金浦泰라고 하는 清道出身 辯護士라는 國會議員을 國會 開會중에 大邱에서 拘束을 했어요. 大邱 警察署에 집어 넣었어. 그런데 國會에서 國會 開會중에는 現行犯 아니면 國會議員은 拘束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開會중인데 왜 잡아 넣느냐? 趙博士가 內務部長官이라 出席시켜 물으니까 附逆을 한 사람은 保安法에 의해서 언제든지 現行 狀態가 계속되는 것으로 現行犯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保安法 違反이 무엇이냐 하니까 美軍政 때 人民委員會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慶尚 北道 文化部長을 수락하고 그것을 자기는 수락하지 않았다는 聲明을 한 혼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수락한 상태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大邱의 임문석이라고 하는…… 그때 國會議員 아니었읍니다.

○司會： 그 당시에 辯護士였읍니다.

○李載漫： 그 사람이 辯護士로 나섰읍니다. 그 林辯護士가 辯論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때 北傀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명단을 넣고 발표하고 하는 관국에 누구를 상대로 성명서 내고 否認하겠느냐는 主張이지요. 마침내 國會에서 金浦泰議員釋放이 否決 되었지요.

○司會： 그 당시 假想의인 얘기를 해서 필요없겠읍니다마는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出했으면 누가 됐을까요?

○李載漫： 그래도 李博士가 될 수도 있었어요. 聯立內閣 舉國內閣下에서 事態收拾하는 것이 철션 國民에게 보여 주는 모습도 좋고 實質的인 精神效果도 좋았을 거에요.

○洪滄燮： 그때까지 國會에서 野黨이 절대적으로 세고 李博士를 지지하는 與黨은 불과 얼마 안 됐다 하는게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습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國會末期에는 國會運營委員長을 했읍니다. 張澤相 滄浪이 總理를 그만 둔 다음입니다. 新羅會가 21名이에요. 新羅會가 안 들어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與黨이 모자랍니다. 新羅會가 어디로 가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新羅會 21名중에… 金智泰議員 李忠煥議員 그런 분들이 그때 新羅會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新羅會의 交涉委員이에요. 그 新羅會를 흡수하는 責任者가 남니다. 南松鶴이하고 나하고 협상하면 얘기를 좀 해야 겠어요. 滄浪이 어지간히 들어 올려고 그래요. 가서 交涉을 하니까 자기가 總理까지 지냈고… 그래서 다 흡수하기로 승락을 받았어요. 그때 院外自由黨이라는게 있습니다. 양, 진,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南浦洞에 自由黨事務室이 있었어요. 우리 國會議員은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院外自由黨인가 그 사람들이 따위고 서 國會議員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發言權을 별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南松鶴議員은 總務部

次長인가 政務部次長인가 그럴 당시인데 가서 報告를 하니까 안 들어 줍니다. 못 받겠다 왜 못 받느냐? 滄浪이 거기 있는데 그대로 데려 왔다가는 날마다 거기 끌려 다닐텐데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老大統領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事事件件 國會에서 數字가 모자라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소위 與黨이라고 하면서 自由黨을 하고 앉았다고 하면서 그래 新羅會 21名이 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 왜 못 받느냐? 내가 전부 승락을 받았으니 넣어야 한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때 그랬어요. 배고풀 때야 훌렁 들어 마시고 가시가 하나 있으면 훌렁 뺄으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반대를 해요. 南松鶴이 하고 나하고 둘이에요. 나는 交涉委員이고 南松鶴이는 政務部次長인데 그래서 안 들어 주니까 양복저고리를 들이서 훌렁벗고 南松鶴이도 뚱뚱했지만 나도 그 때는 90kg입니다. 지금은 80kg밖에 안 되지만 의자를 끌려 빼고 모조리 갈기는 거예요. 잘기니까 전부 책상속으로 들어가고 내빼고 이런 정도로 南浦洞自由黨事務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치루고 나니까 도로 다 계자리에 앉아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책임지마. 나중에 張澤相씨가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진다. 그때 내가 國會運營委員長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國會에 들어 와서 國會를 散會를 했을 거에요. 아마 休會로 들어갔나… 어떻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滄浪에게 죄를 지은 얘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自由黨 맨 뒤에다가 張澤相씨 책상을 놓고 그 다음에는 21名 모아 두면 문제가 되니까 新羅會에서 들어온 분들을 여기저기 끼워 놓고 張澤相씨를 맨 뒤에다가 놓았더니 이 분이 와서 보니 자기와 같이 왔던 사람들은 옆에 하나도 없고 맨 뒤에다가 앉혀 놓으니 아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이는 自由黨을 결국은 안 하고 20名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國會를 수습해서 밀고 나가니 겨우 過半數를 만들어 해 나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司會：黃博士님이 지금 말한 맥락에서 戰時下에 있어서의 李承晚博士와 國會, 釜山 政治波動까지 얹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들이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黃聖秀： 그러니까 이제 두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李承晚博士는 日帝에 항거해서 獨立運動한 獨立運動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 하버드·프린스턴대학에서 國際政治學을 한 그런 분이고 國民的인 상징이다 外交에는 鬼神이다. 그래서 아까 尹副議長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분을 指導者로 모시자는 것이 그 때의 본위기였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國內政治에 어두우시기 때문에 조금 有能한 사람들을 다 包攝하고 아까 諸國內閣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政治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大統領을 하시면서 副統領을 좀더 有能한 사람으로 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有能한 副統領이었으면 마지막에 실패하는 그 때에도 大統領은 무난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國民들 심정이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 분이 國內政治에 어둡고 人事를 몰라서 그렇지 그 분에게는 本心이 獨裁를 원한다거나 不法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美國式 民主主義는 아는 분이고 다만 오래 했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모두가 다 어려 보이고 위태해 보여서 그냥 자기가 다 취하고 하려는 데서 무리가 생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어리지 않은데 말려 놓으면 그렇게 잘 할텐데 너무 어리게 보고 누른 데서 問題가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李大統領을 어느정도 가까이 모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UN總會가 「샌프란시스코 오피라하우스」에서 創立總會를 할 때 나는 美國政府의 Office of War Information의 部長이니까 「패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獨立運動하는 사람 11名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傷聽券이 없었어요. 내가 傷聽券 없어다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 하신 적도 있어요. 저의 先親이 (立法議院議員이신 黃保翌牧師) 역시 韓國의 建國은 反共하는 李承晚博士라야 한다 하는 長文의 전지를 써서 제가 翻譯을 해서 아버님과 함께 敦岩莊에

## “쇠부스러기도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면 强鐵이 되듯 政治人们도 6·25라는 뜨거운 試鍊을 통해 단련되어야”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李承晚博士가 만족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프란체스카」女史에게 「타이핑」을 시켰어요. 나는 못보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프란체스카」女史 回顧錄을 쓰면서 그 얘기가 조금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美國政府에 李承晚博士여야 한다고 전문 보낸 적도 있고 해서 李大統領과는 公私로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選舉 때 제가 主講土中의 하나입니다. 大邱 濟城川邊에 그 당시에 30萬名 모아놓고 講演을 하면서 李承晚博士는 어쩔 수 없다 支持했음을니다. 그러나 李起鵬副議長에 대해서는 우선 健康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을 잘 엮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고, 結論을 얘기하자면 6·25때의 教訓은 그래도 國內政治에는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外交에는 역시 알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點에서 國際政治史上으로 볼 때에도 北韓이 南侵을 했을 때에 UN安全保障理事會에서 마침 蘇聯이 안나오고 「보이코트」할 때니까... 北韓을 侵略者로 決議했습니다. 그 때 「백아미」將軍이 그냥 進軍한 것 아니에요. 와서 직접 돌아보고 鴨綠江과 豆滿江以南을 統一할 수 있는 權利를 UN에 보고하여 決議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後退 때 中共도 侵略者로 規定을 했습니다. 그때 朝鮮「호텔」에서 大使館 政治顧問하던 「노블」博士를 만나서 왜 美國이 後退하느냐? 이 大國이... 하니까 「too many too many」 너무 많으니까 일단 後退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滿洲만 폭격하면 안넘어오는데... 하니까 爆擊하면 자극을 주니까 더 큰 戰爭이 날 것 같아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李承晚博士의 理論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UN이 國際 政治史上 처음으로 國際 侵略戰爭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國際聯盟은 「우드로·윌슨」이 理想主義의으로

처음으로 51個國들을 모아서 Congress of Vienna 까지 몇 나라가 했지만 全 世界的으로 한 것은 國際聯合이 처음인데 문제는 이빨이 없는 國際聯合이어서 美國서도 上院議員 탓지 같은 분이 反對를 했지요. 그러니까 戰爭을 막으려면 이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UN은 UN憲章 39條 이하에 戰爭이 있을 때는 侵略者로 規定하고 國際警察軍 UN軍을 동원해서 軍事力으로도 侵略을 막을 수 있는 規定이 있는데 組織과 法은 있지만 무엇으로 施行하느냐 하다가 韓國戰敗에서 야 겨우 그 형틀이나마 UN警察軍이라는 것을 갖추었지 않아요. 그런데 李博士는 中共이 侵略者이니까 UN警察軍이 이것을 잡으려 가는 것은 당연한데 강도하고 타협을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停戰을 反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아미」將軍에 대한 歷史的 評價가 여러가지 있겠읍니다마는 그가 主張한 대로 그 때에 滿洲를 爆擊하고 鴨綠江과 豆滿江까지 UN軍이 進軍해서 統一을 해버렸으면 韓國은 統一될 뿐만 아니라 못된 장난을 共產軍이 못했을 것 아니냐? 그것이 李承晚博士의 理論이었고 나도 그 外交理論을 美國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1955年 「하버드」의 「인디애소날·세미나」 그 때는 「죠지·엔리웃트」가 部長이고 「키신저」는 그 밑의 副教授할 때인데 Korea in World Politics라고 放送도 하고 했는데 李博士 理論대로 6·25가 주는 教訓은 侵略해서 이기면 점령하는 것이고 지더라도 最小限 절반은 가지고 承認을 받는다 완전히 政治的 承認을 못 받으면 交戰國 承認이라도 받는 것이 捷徑이다 해서 자주 侵略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강도같은 侵略者와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鴨綠江·豆滿江까지 進軍하라고 놔두어야 할 뻔에 「트루만」美 大統領과 같이 철저하지 못한 분이 「스케일」이 작아서 그 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아미」將軍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李承晚博士는 個

人的으로도 「매아미」와 굉장히 친했지 않아요?

적어도 6·25의 教訓으로 보자면 “원저히 UN軍이 그 때 侵略者를 응징했던들 韓國도統一되었을 것이고 越南事態나 기타 여러가지 共產侵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굉장히 教訓이라 생각합니다.

共產黨에 대해서는 過大評價를 해도 안되지만 과거처럼 너무 過小評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요즈음 사람들은 너무 중공을 의식하는데 共產黨에 대한 것을 現實的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實力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리 韓國하고 친하고 「바스켓 볼」하고 해도 최후에는 북한하고 더 가깝지 우리하고 가깝지는 않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지금 北韓이 陸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났지만 空軍이라든지 潛水艦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 共產黨에 대한 것을 좀 더 現實的으로 파악하자는 예기입니다.

그리고 國會議員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國會議員들이 選舉區에 가서 票籤을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의 北韓을 경당하게 인식시키는 啓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变變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는 항상 三角外交을 主張했습니다. 行政府가 하는 外交, 「피플 투 피플」의 外交 그것 말고 國會議員이 하는 外交, 즉 三角外交가 있어야 되는데 國會議員들이 요즈음 굉장히 外遊를 많이 합니다마는 國會議員들이 가서 観察하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國內에 와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런 観察하고 정말 國會議員對 國會議員의 外交를 더 좀 멋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하는 學者로서만 아니라 大韓民國對 美國, UN 혹은 世界各國과의 外交을 國會議員外交로서 支援해 주라는 겁니다. 李博士는 共產軍을 바로 볼 수가 있었고 또 對美 對UN政策에 있어서 「매아미」路線과 합치한 점에 있어서는 바른 外交路線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司會：雲耕先生님! 6·25의 教訓과 戰時, 非常時의 國會活動에 대해서 黃博士님이 말씀을

대충 하셨는데 雲耕先生님이 한번 얘들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載澤：6·25 후에 韓國의 되어 가는 모양을 보고 6·25라고 하는 試鍊은 수천년 歷史上 가장 큰 試鍊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試鍊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못하고 試鍊을 값없게 둘린 것처럼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政治하는 사람이 6·25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政治觀, 政治에 대한 자기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6·25가 물아 닦쳤을 때 얼마나 無力 無意味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떠자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分斷된 南쪽에 사는 우리가,統一을 위해서統一이전에統一에 대비하기 위한 南韓의 繁榮과 富強을 위해서 이런 것을 政治의으로 우리가 각기 조건으로 내걸고 「잇슈」로 내걸었었는데 거기에 優劣은 있었을는지 몰라도 全體的으로 본다고 하면 事態에 대한 展望이나 對處에 전혀 無力하고 의미가 없는 짓들을 했다. 쇠부스러기도 풀무에 들어가서 鎔鑄過程을 거치고 나면 強鐵이 되는데 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政治人們이 그 鎔鑄爐보다도 더 뜨거운 試鍊을 겪고 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줄거리로 다시 한번 마련했어야 할 터인데 釜山시전에 일체의 既存政黨들이 이것을 6·25라고 하는 試鍊의 歷史앞에서 告解를 해 가지고一切의 증오, 애증을 초월해서 우리가 무엇을 摸索해 보자고 그런 것을 호소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既存政黨중에 연마간의 優先權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은 收復한 後 무슨黨의 擴大方案이나 講究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날이 갈수록 더 6·25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거기에 切齒腐心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을 흉내낼 데에 6·25를 오늘 회상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마당에 나올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反共問題도 그렇습니다. 反共은 韓國에 있어서統一이 되는 날까지 우리 모든 행동의 原點으로 삼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反共이

## “反共은 韓國에 있어서 統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의 原點으로 삼아야 한다.”

國民의 課業이 아니고 이제 어느 품에 行政官吏들의 事務項目으로 후회가 되었어요. 이것은 6·25에 대한 試鍊을 忘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떤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거리에서 발견했다. 그 빠리를 보니까 그 文句는 北에서 날아온 것 같지만 종이의 무게가 모조지라면 이것은 풍선을 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이것은 수십만장 수백만장을 印刷해서 풍선으로 날려보낸 것이니까 輪轉機로 찍었어야 할터인데 石版으로 찍었다 그러면 그것을 볼 적에 그 근처에 固定間諜이 있어서 北에서 보낸 것처럼 하고 거기서 물래 조금 만들어서 그 地域에만 뿐만이 떤한데 누구하나 警察에게 말해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이렇게 國民들은 反共을 자기 生命 다음 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날로 되어 갑니다.

6·25직후에는 그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良民이 볼 때 이상하기 때문에 한번 追跡을 해봅니다. 情報使命을 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住民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저기 가는 놈이 빨갱이라고 해도 꽂아가지 않을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官에서 月給받는 이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하면 國民들에게 反共은 자기를 保衛하고 國家를 保衛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戰爭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6·25는 우리에게 더 없이 중요한, 아주 값어치 있는 試鍊을 통해서 教訓을 주었읍니다. 教訓을 주었음에도 不拘하고 教訓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뼈저린 教訓은 커녕 자꾸 망각하는 쪽으로 갑니다. 教訓은 있었읍니다마는 教訓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社會가 되어가는 것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司會：洪先生님 말씀해 주시지요。國會에서는 戰時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합쳐서…… ○洪滄叟：6·25의 教訓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教訓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제가 言及을 했어요。民主主義 國家라면 3權이 分立되어 國會議員이 消耗品이 아니고 備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意味가 6·25를 치르고 나서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3權分立은 大統領과 國會議員과 司法院要員은 같이 行動을 해서 어디로 避難을 하더라도 해야 할터인데도 不拘하고 그런 것을 事前에 생각을 못했고, 그런 行動을 못했다는데 이것이 教訓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서 아까도 말씀한 것입니다。

속後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문제는 올바로 民主主義를 하는데는 行政府가 國會를 輕視하는 風潮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의 생각보다도 一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行政府가 國會議員을 그 전에는 長官 대우를 했는데 요새는 次官 대우인가 하고 있다. 그 전에 소위 長官 대우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처우를 했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次官 대우를 한다면 더 돌아다 보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民主主義 國家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行政府가 國會를 존중해서…… 國會議員 한 사람 當選시키기 여간 힘듭니까? 그러니 까 國會議員은 어디까지나 國民의 대변자니까 대우를 해주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것을 行政府도 생각을 하고 國民도 다 생각하고 國會議員을 아끼는 國民, 國會를 아끼는 行政府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옳

바른 民主主義가 되겠다 하는 教訓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25 당시에 國軍이 北進을 하고 李承晚博士가 平壤 까지 入城해서 환영을 받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 저는 國會議員이니까 여러가지 情報를 들어보았을 때... 첫번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國軍이 들어왔다고 해서 평장히 환영을 하고 했는데 그들의 行動處事를 보고 나중에는 실망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뭐 敵地에 들어가서 敵地를 占領한 것 같은 태도, 이러한 일을 軍人들이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今後에도 우리가 平和統一을 목표로 하고 또 平和統一이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어떠한... 우리가 動亂이 일어난다면가 해서統一하는 경우에 진통을 한번 겪을 때가 없다고 도 생각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어디까지나 동포애로써 占領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서로 愛國心과 愛族心에서 우리가 統一을 하고 아끼고 이래야 되겠는데 무슨 敵地에 들어가서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25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겪었으니까.....

國會에서 제가 發言한 일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統一院이 생겼으니까 統一院長官이 여러가지로 南北統一 할 때 어떠한 方法으로 統一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떠한 方法으로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앞을 전망하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복한 직후에 그百姓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軍部가 그 전보다 달라져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代 國會의 6年동안을 國防委員을 했어요. 그래서 軍部內容도 제가 대강 짐작을 합니다 그 전과는 달라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南北統一을 앞으로 언젠가는 統一을 해야 할 나라인데 統一을 할 때 어떤 方式으로 統一이 되느냐 平和統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武力行使를 하고 어떠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건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치밀한 訓練을 잘 쌓아서 조금도 비극이 없는 나라, 비극이 없는 民族統一이 되어야지, 앞으로 또 과거에 우리가 들면 그러한 비극을 자아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教訓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6·25敎訓도 있지만 이번에는 尹議員님께서 國會와 戰爭을 연결지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吉重: 아까 느낀 점은 소박한 의미에서 國會와 行政府가 理由 여하를 막론하고 호흡이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쨌든 불행한 일이었지요. 大局的으로 따져볼 때는 상당히 各自의 理由가 있다고 보겠지만.....

물론 獨立運動도 하시고 또 愛國者들도 계시고 이 나라를 5,000年동안 지켜온 國民들이 막강하다고 하겠지만, 요컨대 우리의 力量의 不足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의 敎訓이라고 하면 꼭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잘한 것을 엄밀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一致團結해서 國力を 培養해야 한다.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國力이 培養되지 아니하고는 이 統一問題도 그렇고 또 그러한 어려운 環境을 당하는 것 또 그러한 어려운 環境을 당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國際政治 속에서의 우리를 다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國力を 기르는 것이 제일 急先務다. 그것을 敎訓삼아 가지고 너무 자질구제한 데에 소위 大同이 아니라 小異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은 우리의 訓練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다시 反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民正黨이 國民和合이라든가 社會正義의 강조라든지 民主主義를 土着化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口號로만 내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國民과 어붙어서 이 문제를 정말 急速的으로 國民의 力量을 발전시키는데 6·25의 敎訓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4年동안의 2代國會를 약 3時間 동안에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충분한데요.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지울까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